

멕시코 대선 의 주요 이슈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홍성우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장 (swhong@kiep.go.kr, Tel: 044-414-1150)

김진오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선임연구원 (jokim@kiep.go.kr, Tel: 044-414-1085)

박미숙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 (misookp@kiep.go.kr, Tel: 044-414-1105)



차 례

1. 2024년 대선 개요
2. 대선 후보별 주요 공약
3. 미국-멕시코 간 주요 이슈와 후보별 입장
4.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6월 2일 치러질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 여당 연합의 세인바움 후보, 야당 연합의 갈베스 후보, MC당의 알바레스 후보 등 총 3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으며, 현재 세인바움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고 있음.
 -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세인바움 후보와 갈베스 후보의 공약을 살펴본 결과, 공기업 관련 입장을 제외하면 경제, 인프라, 에너지, 외교 부문에서 두 후보의 주요 공약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인바움 후보와 갈베스 후보 간 주요 공약의 차이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멕시코의 북미 경제 편입 정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대선 결과가 향후 멕시코의 대내외 경제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은 상당한바, 미국-멕시코 간 주요 무역·통상 이슈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함.
- ▶ 미국-멕시코 간 주요 이슈로 △중국의 대(對)미국 우회 수출 증가, △멕시코의 에너지 정책, △USMCA 및 북미 공급망, △이민 등을 꼽을 수 있음.
 - 2018년 미국의 對중국 관세 부과와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이후 미국의 對중국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부가가치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멕시코를 통한 중국의 對미국 우회 수출 가능성이 관찰됨.
 -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제한하는 멕시코의 에너지 정책은 현(現) 오브라도르 정부에서 미국과 마찰을 빚었던 부분으로, 세인바움 후보는 오브라도르 정부의 노선을 유지하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자 하며, 갈베스 후보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에너지 정책 변화를 공약함.
 - 두 후보 모두 멕시코 경제에 있어 USMCA의 중요성과 잠재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처로서 멕시코에 대한 관심 증대가 자국에 기회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
- ▶ 미국 대선 결과가 향후 멕시코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큰바, 미국-멕시코 간 무역·통상 이슈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멕시코 이외의 국가와도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후보 간 공약의 방향성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미국 대선 결과 및 미국-멕시코 간 관계에 따라 양국간 무역·통상 이슈와 멕시코 대외경제정책의 불확실성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바, 우리 기업에는 미국의 대선 결과가 멕시코 진출 고려 시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미국-멕시코 간 무역·통상 이슈를 점검해 니어쇼어링 기지로서 멕시코의 이점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니어쇼어링 기지로서 멕시코가 갖는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멕시코 이외의 중남미 국가를 발굴해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 2024년 대선 개요

■ 現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은 2024년 4월 기준 66%¹⁾의 매우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여당인 MORENA에 대한 지지율도 42%²⁾로 개별 정당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아 6월 2일 치러질 대선 및 총선에서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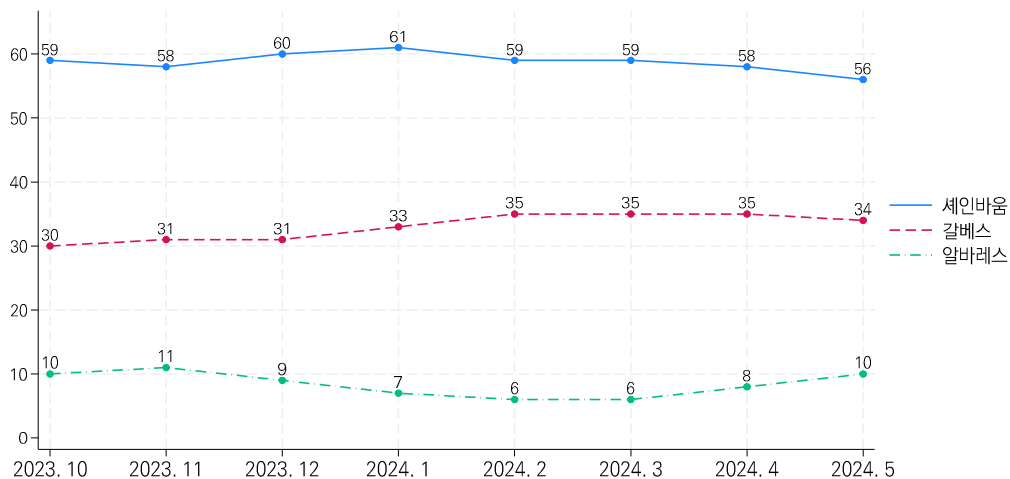
- 여당인 MORENA는 상원 의석의 44.5%와 하원 의석의 50.4%를 차지하는 다수당으로, 현재 지지율이 42%이고 연합정당인 PVEM과 PT를 포함한 합계 지지율이 46%임을 고려할 때 6월 2일 치러질 대선 및 총선에서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야당 연합인 PAN, PRI, PRD의 합계 지지율은 30%, MC의 지지율은 7%에 불과함.

■ 이번 대통령 선거에 여당 연합(MORENA, PVEM, PT 연합)의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후보, 야당 연합(PAN, PRI, PRD 연합)의 갈베스(Xóchitl Gálvez) 후보, MC당의 알바레스(Jorge Álvarez) 후보 등 총 3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으며, 현재 셰인바움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음.

-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인 MORENA당의 셰인바움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2024년 5월 기준 56%로, 야당 연합의 갈베스 후보에 대한 지지율 34%와 큰 격차를 보임.

그림 1. 멕시코 대선 후보 지지율

(단위: %)



자료: Oraculus(<https://www.as-coa.org/articles/poll-tracker-mexicos-2024-presidential-vote>, 검색일: 2024. 5. 23.).

1) ORACULUS(2024. 5. 3.), "Aprobación presidencial," <https://oraculus.mx/aprobacion-presidencial/>(검색일: 2024. 5. 23.).

2) Carin Zissis(2024. 5. 15.), "Poll Tracker: Mexico's 2024 Presidential Vote," <https://www.as-coa.org/articles/poll-tracker-mexicos-2024-presidential-vote>(검색일: 2024. 5. 23.).

- 본고에서는 현재 지지율 1, 2위를 기록 중인 셰인바움 후보와 갈베스 후보의 무역·통상 관련 주요 공약, 미국-멕시코 간 무역·통상 이슈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대선 후보별 주요 공약

- 공기업 관련 입장을 제외하면 경제, 인프라, 에너지, 외교 부문에서 셰인바움 후보와 갈베스 후보의 주요 공약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USMCA] USMCA 검토 및 연장 조항(Article 34.7: Review and Term Extension)에 따라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2026년에 실시할 USMCA 연장에 관한 협의에서 두 후보 모두 미국이 중국의 對멕시코 투자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USMCA를 개정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으나, 셰인바움 후보는 큰 문제 없이 USMCA 연장이 추진될 것이라고 발언함.³⁾
 - 상기 발언과 달리 셰인바움 후보는 멕시코의 이익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 무역을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며,⁴⁾ 중국의 성공적인 국제경제 편입 사례를 멕시코에 적용해야 함을 강조⁵⁾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USMCA 연장 협의가 순탄치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인프라] 셰인바움 후보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철도 중점) 건설, △국영 에너지기업 지배력 강화 등과 같은 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갈베스 후보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함.
 - 다만 갈베스 후보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강하게 비판하고 프로젝트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유소 건설 프로젝트를 유지하는 것을 공약하고 있어 비판의 강도에 비해 정부 주도 투자에서 크게 벗어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에너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달리, 친환경론자인 셰인바움 후보는 화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공약하였으며, 갈베스 후보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의 친환경 생산방식에 부합하도록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현 정부는 이전 니에토 정부(2012~18)가 약속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취소, 국영기업 중심의 화력발전 비중 확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하향 조정 등을 추진하였으나, 셰인바움 후보는 에너지 정책에서만은 현 정부와 차별화할 것을 강조함.
- [대외경제] 미·중 갈등 이후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활발해진 니어쇼어링(nearshoring)은 멕시코의 외국인투자 유입을 급증시켰고, 두 후보 모두 이러한 외국인투자가 멕시코의 경제성장과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여 외국인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3) EXCELSIOR(2024. 4. 22), "Claudia Sheinbaum prevé revisión del TMEC sin grandes problemas," <https://www.excelsior.com.mx/nacional/claudia-sheinbaum-preve-revision-del-tmec-sin-grandes-problemas/1647950>(검색일: 2024. 5. 24).

4) Eduardo Lopez Chavez(2024. 4. 25), "Candidatas presidenciales, listas para hacer frente a China en revisión de T-MEC," <https://eduardolopezchavez.mx/2024/04/25/candidatas-presidenciales-listas-para-hacer-frente-a-china-en-revision-de-t-mec/>(검색일: 2025. 5. 24).

5) Forbes(2024. 4. 18), "México debe aprender de China de cara al nearshoring, asegura asesora de Sheinbaum," <https://www.forbes.com/mx/mexico-debe-aprender-de-china-de-cara-al-nearshoring-asegura-asesora-de-sheinbaum/>(검색일: 2024. 5. 21).

- [외교] 현 정부가 국내 이슈에만 치중한 것과 달리, 두 후보 모두 외교 부문을 강화하고 G20 회의와 다자협 의 기구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함.
-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두 후보 모두 미국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중국과는 대립하지 않는 외교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니어쇼어링 기지로서 멕시코가 주목을 받으면서 對멕시코 투자 및 멕시코의 對미국 수출이 급증한바, 두 후보 모두 미국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불가피함.
- 다만 중국의 對멕시코 투자 역시 급증해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임.
 - 멕시코 경제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對멕시코 신규투자액은 2018년 약 3,770만 달러에서 2022년 약 4억 9,380만 달러로 13배 이상 증가하였음.⁶⁾

표 1.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 비교

(단위: %)

분야	세인바움 후보(여당)	갈베스 후보(야당)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퇴치 프로그램의 예산 확대 - 65세 이상 연금 수령 보장 - 조세 행정 강화와 조세 회피 축소 - 건축 재정과 정부 부채 축소 - 인프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퇴치 프로그램 유지 - 중소기업, 청년 및 여성 기업인, 기업의 혁신활동 등 지원 - 지속가능한 방식의 지역 균형 발전
인프라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인프라(도로, 항공, 철도 등) 확충 - 현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지속 -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 - 국가 통신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인프라(도로, 항공, 철도 등) 확충 - 현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재검토 - 정부의 인프라 건설 계획에 민간기업과 시민의 의사 반영 - 전기차 보급 확대
에너지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급 확대, 하수 처리와 물 재활용 - 에너지 보조금(석유, 전기) 지속 - CFE(전력공사) 생산 전력의 54%를 재생에너지로 구성하고, 민간기업의 전력 생산 참여를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 탄소중립 - 생물다양성 보존을 헌법으로 보장 - 태양, 풍력, 지열 발전 확대 - 물 공급 확대와 관련 투자 증대 - 물 사용이 적은 농업기술 개발 - 해수의 담수화 프로젝트 시행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총회, G20, CELAC(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과 같은 국제회의 적극 참여 - 외교부 기능 강화 - 이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메커니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20과 같은 국제회의 적극 참여 - 미국과의 외교 관계 강화 - USMCA 개정 시 멕시코 이익 관철 노력 - 중국과 대립하지 않는 전략적인 외교관계

자료: Wilson Center(2024. 3. 27.), "Mexico's Presidential Candidates' Campaign Platforms: A Comparison," <https://www.wilsoncenter.org/article/mexicos-presidential-candidates-campaign-platforms-comparison>(검색일: 2024. 5. 20.)

- 세인바움 후보와 갈베스 후보 간 주요 공약의 차이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북미경제 편입 정도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대선 결과가 향후 멕시코의 대내외 경제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은 상당한바, 미국-멕시코 간 주요 무역·통상 이슈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함.

6) <https://www.gob.mx/se/acciones-y-programas/competitividad-y-normatividad-inversion-extranjera-directa?state=published>(검색일 2024. 5. 24.)

3. 미국-멕시코 간 주요 이슈와 후보별 입장

가. 중국의 對미국 우회 수출 증가

■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1974년 통상법(the Trade Act of 1974)」 301조에 의거해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태양 전지(solar cell) 등 대중국 주요 수입품 180억 달러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함.⁷⁾

- 특정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은 0~7.5% → 25%(2024년), 전기차 관세율 25% → 100%(2024년),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관세율 7.5% → 25%(2024년), 배터리 부품 관세율 7.5% → 25%(2024년), 태양 전지 관세율 25% → 50%(2024년), 기타 핵심광물 관세율 0% → 25%(2024년), 반도체 관세율 25% → 50%(2025년까지), 리튬이온 비전기차 배터리 관세율 7.5% → 25%(2026년), 천연 흑연 관세율 0% → 25%(2026년) 등으로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인상 계획을 발표함.

■ [그림 2]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에서 시행한 2018년 對중국 관세 부과와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한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이후 미국의 對중국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부가가치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멕시코를 통한 중국의 對미국 우회 수출 가능성이 관찰됨.

- 트럼프 정부하인 2018년과 2019년 사이 미국의 對중국 수입은 약 5,632억 달러에서 약 4,725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미국의 對멕시코 수입은 약 3,492억 달러에서 약 3,613억 달러로 소폭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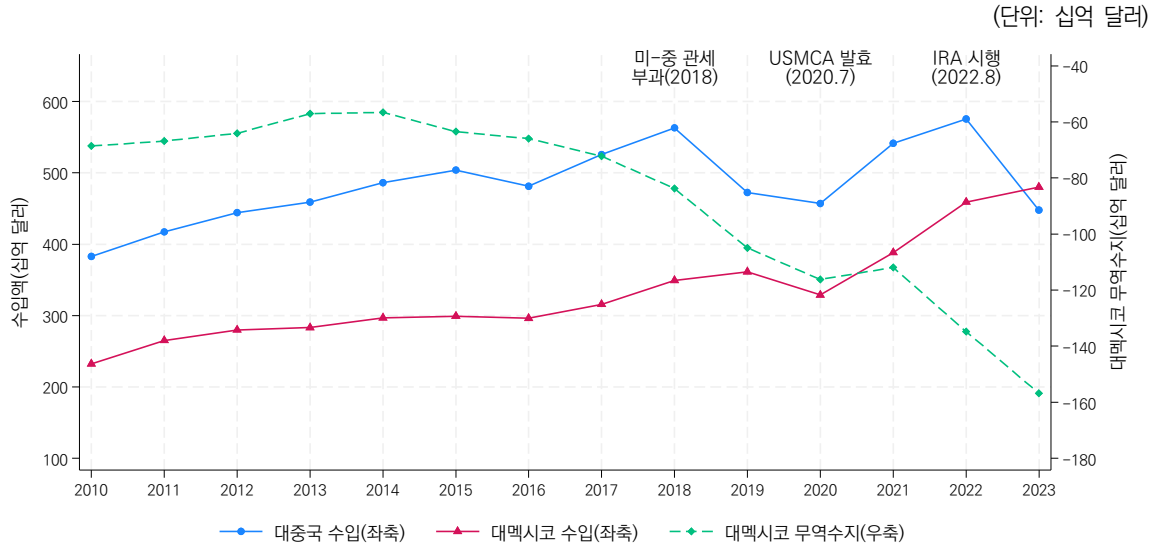
- 바이든 정부하인 2022년과 2023년 사이 미국의 對중국 수입은 약 5,757억 달러에서 약 4,480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미국의 對멕시코 수입은 약 4,592억 달러에서 약 4,801억 달러로 소폭 증가해 미국의 對중국 수입을 추월하였음.

- 부가가치 기준으로 살펴보면(그림 3), [그림 2]의 패턴과 달리 2018년과 2019년 사이 멕시코의 對미국 수출에 포함된 중국의 부가가치 비중은 5.4%에서 5.9%로 오히려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무역·통상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의 對중국 압박을 멕시코를 통해 상쇄하고 있는 형상임.

○ 다만 [그림 3]에 따르면 2021년에 비해 2022년 멕시코의 對미국 수출 내 중국의 부가가치는 감소하였는데, 2022년 8월 IRA가 시행되어 대응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과 2022년까지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고려하면 향후 2023년 중국의 부가가치는 재차 높아졌을 개연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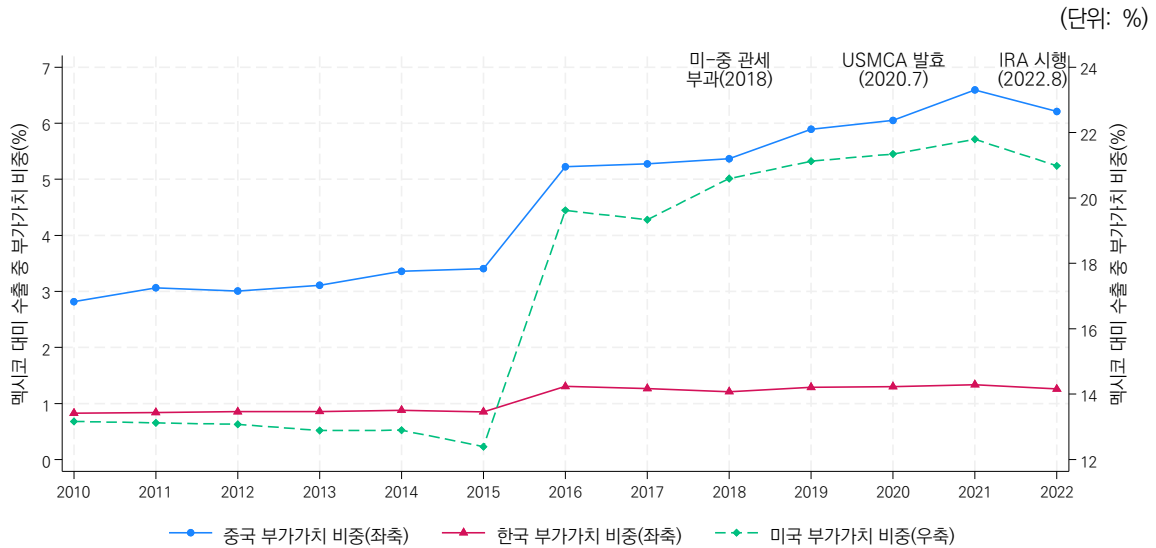
7) The White House(2024. 5. 14.), "FACT SHEET: President Biden Takes Action to Protect American Workers and Businesses from China's Unfair Trade Practice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5/14/fact-sheet-president-biden-takes-action-to-protect-american-workers-and-businesses-from-chinas-unfair-trade-practices/>(검색일: 2024. 5. 20.).

그림 2. 미국의 對중국 수입액, 對멕시코 수입액 및 무역수지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그림 3. 멕시코의 對미국 수출 중 국가별 부가가치 비중



자료: Eora MRIO 데이터를 이용해 저자 작성.

■ 셰인바움 후보와 갈베스 후보 모두 ‘중국의 우회 수출’이라는 특정 이슈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대해 공식적인 발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전반적인 경제협력에 있어 미국을 우선순위에 두는 입장임.

- 셰인바움 후보는 미국과의 무역·통상 관계가 ‘근본적(fundamental)’이라고 언급하면서 중국과의 공급망 연결을 축소(reduce)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을 멕시코로 이전하도록 유인해야 하며, USMCA는 현재뿐만 아니라 니어쇼어링을 통해 미래에도 멕시코 경제에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다고 발언함.8)

8) Financial Times(2024. 4. 21.), “Mexico’s presidential frontrunner vows to prioritise US trade ties,” <https://www.ft.com/content/eb1fbc8-8d1f-4b61-b41d-0bdc6cfc28ab>(검색일: 2024. 5. 21.).

- 갈베스 후보는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멕시코의 지리적 입지를 감안할 때 미국이 우선순위에 있음을 강조함.⁹⁾

나. 멕시코의 에너지 정책

-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제한하는 멕시코의 에너지 정책은 현 오브라도르 정부에서 미국과 마찰을 빚었던 부분으로, 세인바움 후보는 오브라도르 정부의 노선을 유지하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자 하며, 갈베스 후보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변화시킬 것을 공약으로 제시함.
- 세인바움 후보는 국영 석유기업인 Pemex의 정치적·사회적·재정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오브라도르 정부처럼 Pemex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탄화수소 부문에서 주도권 유지, 연료 수입 축소를 위한 정유 부문 투자 강화 등을 지지함.
- 그러나 석유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부분적으로 개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 전환, △'e-모빌리티'에 필요한 인프라 및 규범 개발 원활화, △친환경 자동차 판매 비중 제고, △'e-모빌리티' 연계 니어쇼어링 유치 등을 강조함.
- 갈베스 후보는 △Pemex-민간 부문 파트너십 강화, △Pemex의 역할을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에 집중, △'e-모빌리티' 지원 및 촉진 등을 제시함.

다. USMCA 및 북미 공급망

- 세인바움 후보와 갈베스 후보 모두 멕시코 경제에서 USMCA의 중요성과 잠재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처로서 멕시코에 대한 관심 증대가 자국에 기회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니어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국경 통과 절차 현대화, 법률적 확실성 개선, 도로 및 철도망 개선 등을 제안함.
- 두 후보 모두 니어쇼어링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정책과 연계하고자 함.
- 세인바움 후보는 멕시코의 국경 및 북부 지역에 집중되는 니어쇼어링을 남부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갈베스 후보는 화물철도 인프라 개발과 공공사업에서 군부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함.

라. 이민

- 이민은 미국과 멕시코에서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데, 특히 멕시코가 이민의 출발지이자 중남미발 이민의 경유지 및 목적지가 되면서 이민정책에 대한 양국간 협력과 조율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9) Bloomberg Television(2023. 9. 8), "Mexican presidential Candidate Xochiti Galvez on Pemex, Trump, China: Full Interview," <https://www.youtube.com/watch?v=8V1nqN8eVrU>(검색일: 2024. 5. 21.).

- 세인바움 후보는 현 오브라도르 정부의 이민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두 후보 모두 미국 차기 정부와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함.
 - 오브라도르 정부는 불법 이민의 근본 원인 제거, 인권 존중, 이민의 합법적 경로 마련 등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나, 멕시코를 통한 불법 이민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민 통제를 시행하며 미국과 협력하였음.
 - 세인바움 후보와 갈베스 후보는 방법상에 차이가 있을 뿐 불법 이민자 관리를 위한 미국의 차기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표명함.
 - 세인바움 후보는 이민이 시작되는 출발 국가에 대한 더 많은 경제적 투자를 지지하는 반면, 갈베스 후보는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이민자들을 멕시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미국의 자금 지원 확대를 지지함.
 - 그러나 두 후보 모두 망명을 원하는 외국인을 미국에서 멕시코로 이송하는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igrant Protection Protocols)’¹⁰⁾과 같은 미국의 이민정책 재개 협력 의향 여부는 불분명함.

4. 전망 및 시사점

- 여당 연합 후보인 세인바움 후보가 갈베스 후보와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며 우세하나, 두 후보의 주요 공약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멕시코의 경제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현 오브라도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과 2018년 미·중 간 보복관세, 2020년 USMCA 시행, 2022년 IRA 시행 등으로 멕시코가 상당한 경제적 수혜를 누렸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다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바, 두 후보 간 주요 공약에 차이가 크지 않음.
- [미국 대선 및 미국-멕시코 관계 중요성] 주요 후보 간 공약의 방향성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미국 대선 결과 및 미국-멕시코 간 관계에 따라 양국간 무역·통상 이슈 및 멕시코 대외경제정책의 불확실성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바, 우리 기업에는 미국의 대선 결과가 멕시코 진출 고려 시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멕시코가 직면한 잠재적 불확실성 요인으로 △중국의 우회 수출, △USMCA 연장 협상, △멕시코의 對미국 무역수지 흑자 등을 꼽을 수 있음.
 - [중국의 우회 수출 증가 (그림 3)]을 통해 알 수 있듯 중국의 우회 수출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있으며, 이 이슈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주시하고 있는 주요 사안임.
 -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중국 및 기타 국가의 관세 회피를 공동으로 방지하기 위해 멕시코와 협력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멕시코로 파견함.¹¹⁾

10) MPP(‘Remain in Mexico’)는 불법적으로 또는 적정 서류 없이 멕시코에서 미국에 입국하거나 입국을 원하는 특정 외국인이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로 송환되어 미국 밖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체류 기간 동안 적절한 인도적 보호를 받음.

11) The White House(2024. 4. 17.),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New Actions to Protect U.S. Steel and Shipbuilding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멕시코 정부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의 통관을 강화하고 관세를 높이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2024년 2월 관보에서 그간의 조치를 밝혔는데, 미국과 멕시코 간 철강과 알루미늄 HS 코드 통일, 미국과 동일하게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 수입 철강의 원산지과 제조 공장 정보 표시, 관세정보 시스템(SIAVI)을 통해 수입되는 철강제품 정보 공시 등의 조치를 취함.¹²⁾
- 멕시코 경제부는 2024년 4월에 USTR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입 철강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세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부의 협약’을 발표함.¹³⁾
- [USMCA 연장 협상] USMCA 검토 및 연장 조항에 따라 북미 3개국은 2026년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 멕시코의 북미경제 편입 정도를 고려할 때, 멕시코가 USMCA 연장에 합의하지 않아 USMCA를 종료하거나 2036년 이전 동 협정을 탈퇴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향후 USMCA 개정은 불가피해 보임.
 - USMCA 검토 및 연장 조항에 따라 2026년 1차 협상에서 동 협정의 연장에 대해 합의하면 USMCA는 16년간 연장되며, 1차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036년까지 매년 협상할 수 있으나 2036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시 USMCA는 종료됨.
 - USMCA의 탈퇴 조항(Article 34.6: Withdrawal)에 따라 서면으로 탈퇴를 통보하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탈퇴가 발효됨.
- [멕시코의 대미 무역수지] 바이든 정부의 무역·통상 정책 명분이 불공정 관행(practice) 시정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명분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완화에 있다고 볼 때, 멕시코의 對미국 무역수지 흑자 지속 및 급증은 바이든 정부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對멕시코 압박 명분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그림 2]에 따르면 멕시코의 對미국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해 왔으며, 2023년 멕시코의 對미국 무역수지 흑자(미국의 對멕시코 무역수지 적자)는 약 1,568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를 기록함.
- [시사점 및 대응] 미국 대선 이후 미국-멕시코 간 무역·통상 이슈를 꾸준히 점검해 니어쇼어링 기지로서 멕시코의 이점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니어쇼어링 기지로서 멕시코가 갖는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멕시코 이외의 중남미 국가를 발굴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경제협력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으로 북미경제에 상당한 수준으로 편입되어 있다는 점, 지리적으로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은 니어쇼어링 기지로서 멕시코가 갖는 장점이지만, 동시에 미·중 갈등 국면에서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멕시코를 통한 중국의 對미국 우회 수출 가능성은 미국이 멕시코를 압박하는 명분이 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거리적 근접성은 미국의 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 요인이므로 향후 USMCA 개정 및 멕시코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음.

Industry from China's Unfair Practice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4/17/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new-actions-to-protect-u-s-steel-and-shipbuilding-industry-from-chinas-unfair-practices/>(검색일: 2024. 5. 20).

12) Gobierno de Mexico(2024. 2. 27.), “México apuesta por el fortalecimiento de la industria acerera en América del Norte,” <https://www.gob.mx/se/prensa/mexico-apuesta-por-el-fortalecimiento-de-la-industria-acerera-en-america-del-norte>(검색일: 2024. 5. 20).

13) Oficina de La Abogacia General(2024. 4. 15.), “ACUERDO por el que se modifica el diverso por el que la Secretaría de Economía emite Reglas y criterios de carácter general en materia de comercio exterior,” <https://abogaciageneral.udg.mx/noticias/acuerdo-por-el-que-se-modifica-el-diverso-por-el-que-la-secretaria-de-economia-emite>(검색일: 2024. 5. 20).

- 미·중 경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상기 멕시코가 갖는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중남미 국가를 발굴해 니어쇼어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멕시코를 니어쇼어링 뿐만 아니라 멕시코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전략 마련이 필요함. **KIEP**